

## 임춘희의 감정과 감수성의 회화와 그 진솔한 소통

### 심상용(미술사학박사, 동덕여대교수)

오늘날 예술은 하나의 컨셉으로 요약된다. 하나의 개념, 하나의 용어로도 충분히 축약된다.

심지어 그 컨셉이라는 것이 돌연 작가의 외부로부터 주어지기도 한다. 전시기획자가 예술가들을 불러놓고선 '이번에는 소외에 대해 말해봅시다'라 말하는 것이고, 예술가들은 전적으로 그 '주어진' 주제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심각하게 추락한 예술의 한 징후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예술을 결코 가감될 수 없는 영혼의 절박한 경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같은 추이는 견디기 어려운 모멸일 수도 있다. 임춘희는 자신의 세계가 '컨셉 예술'의 그것과는 결코 동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러나 겸허하게 밝힌다: "내 작품들은 각각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어 다소 정리되지 않고, 특별히 주시해야 할 컨셉이 없어 보인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나는 그림에 컨셉을 갖긴 싫다. 회화이기에 표현 가능한 요소들이 그 컨셉으로 인해 무시되고 발견되지 못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이다."

임춘희는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 예술가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그가 세계를 그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코 하나의 컨셉으로 요약될 수는 없음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시인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 시를 쓸 때, 굳이 각 편의 주제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그가 원하는 것은 '어떤 세상' 아니라, 세상 자체다.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세상, 꿈꾸고, 고독하고, 그리워하고,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의 세상 말이다. 물론 그것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해서, 임춘희의 내러티브의 중심은 언제나 임춘희 자신을 둘러싸고 흐른다. 그 내러티브들은 작가의 현실과 이상, 실존과 꿈, 그리고 욕망과 상실이 미묘하고 복잡하게 교차하는 무수한 삶의 지점들에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2005년 작품 <세상을 안다>에서 작가는 마치 구멍이 뚫린 회화의 저편에서 이 세계를 향해 다가온다. 머리는 벽화처럼 이미 이 세계에 명백하게 속해있다. 회화는 마치 상징처럼 군데군데가 뚫려 있고 균열이 나 있다. 그림의 하단부에는 이제 막 잠자리를 끝낸 듯한 남녀가 잠시 각자의 상념에 잠겨있다. 이로 인해 하단부를 감싸는 핑크색은 다소 외설적인 해석을 끌어들이는 여지가 있다. 화면 전체는 상, 하부의 차분한 대립과 중간에 우뚝 선 작가의 위엄을 갖춘 자화상이 만드는 수평과 수직의 대비로 인해 가볍게 서사적이기까지 하다. 불안정한 존재를 실감하기, 또는 위협에 직면해가고 있는 실존적 에로스의 한 축약판일까? 분명한 건 이 드라마가 우리 모두에게 낯설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화면의 하단부에 알몸으로 누운 두 남녀를 위치시키는 구도는 이미 2003년의 <우연한 만남>에서도 등장했었다. 거기서 남녀는 수줍은 듯하면서도, 서로의 신체를 조심스럽게 탐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은밀한 에로티즘은 어떤 상념과 멜랑콜리에 둘러싸였다. 두 연인(?) 사이의

교환은 뜨거운 열정의 재현이기에는 지나치게 회색이고, 창백하며 밋밋하고, 신중하다. 화면의 하단부에서 그들은 어떤 지지대 없는 추락의 느낌과 결부되어 있다. 두 남녀가 누워있는 그곳은 보이는 거라곤 먼발치의 지평선이 고작인 잡목 한그루 없는 사막이다.

임춘희의 그림을 언제나 감싸는 고유한 정서적 뉘앙스가 있다. 그것은 깊은 상실감에 빠져있을 때조차 그 깊이를 완화하는 어떤 희화적인 차원의 것이다. 예를 들어, 2003년 작품 <수상한 분위기>에서 임춘희는 얼굴 옆에 우습게 붙어있는 확대된 붉은 코와 초록색 귀를 통해 한 남자의 들떠있는 심리를 묘사한다. 의도적으로 둔탁하게 변형된 신체는 그에게서 풍기는 불안의 수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경중과 완급의 조형적 조절장치로 인해 관객은 마음을 놓고 그림 속의 인물들에게로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임춘희의 그림들은 작가 자신의 감정과 감수성에 대한 성실한 응답이다. 이 점은 관객들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지는데, 이러한 진솔한 교환이야말로 신뢰어린 소통의 성취에 없어서 안 될 요인이다. 바로 이런 소통에서만, 관객들은 작가의 욕망과 상실을 자신의 존재 안으로 초대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한 작가의 지극히 사적인 고백이 단번에 존재의 보편적인 차원으로 도약하는 한 과정인 것이다.